

경기 침체 공포에 글로벌 증시 폭락...투자자들 비명소리

주식·가상자산 등 일제히 큰 폭 하락...코스피 낙폭 역대 최대치 경신 일본·대만 등 아시아 증시도 하락...투자심리 침체 등 장기화 우려도

5일 주식, 비트코인 등의 투자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다. 다우지수가 1.51%, 나스닥지수가 2.43%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낙폭이 컸다. 코스피는 234.64포인트(8.77%) 하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갈아치웠으며, 코스닥 지수도 10%가 넘는 88.05포인트(11.3%)가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1997조7450억원으로 하루 만에 약 192조원이 증발했다. 시총 2000조원이 깨진 것은 2024년 1월 22일 이후 196일 만이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은 338조4265억원으로 하루 동안 약 43조원이 날아갔다. 양 시장 시총을 합치면 이날 추가 낙폭으로 235조원이 증발한 셈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5282억원, 2696억원 순매도를 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1조6961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우려를 키웠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 역시 4451포인트 폭락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직전 거래일보다 12.4% 하락한 31458에 장을 마감했다. 일본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TOPIX)도 이날 12.2% 하락했다. 대만 가권지수도 8% 넘게 내렸다.

일본 주식시장이 폭락한 가운데 이날 일본 엔화 가치는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아시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엔화는 오후 한때 미 달러화 대비 상승 폭을 3.3%까지 키우면서 141.7엔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로 미국 증시



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부 확대간담회에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부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증권가만이 아니라 가상자산시장도 얼어붙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9% 이상 하락한 5만4425 달러에 거래됐다. 며칠 새 하락세를 이어 온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6만달러대가 무너지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다. 코인테스크US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 기술주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침체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1.55 (-234.64)
↓ 코스닥	691.28 (-88.05)
↑ 금리(국고채 3년)	2.806 (-0.133)
↓ 환율(USD)	1365.05 (-6.15)

증권가에선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낙폭 과대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조정세를 지켜본 뒤 비중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진호 NH투자증권 광주금융센터장은 "지난주 금요일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하락한 뒤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오늘 대폭락 직후 전화가 물밀 듯이 왔으며 대부분 공포감에 휩싸여 당장 내내야하는지를 문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다행히 마지막에 반등이 어느정도 이뤄졌는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연합뉴스

양궁 전 종목 '금메달' 석권 뒤에 현대차 '퍼펙트 지원' 있었다



지난 4일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양궁 3관왕에 오른 김우진을 축하하고 있다. (왼쪽) 같은 날 정 회장과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 선수단이 전 종목 석권을 축하하고 있다.



자단제전 10연패 달성 이후 현장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희선 회장, 1985년부터 후원 슈팅 로봇·훈련 장비 등 맞춤 지원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포함해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정희선 대한양궁협회 회장과 현대차그룹의 지원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은 대한민국 양궁 역사상 첫 5개 종목 석권,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은 대회로, 대회에 앞서 대표팀의 전력 강화를 위한 현대차그룹의 맞춤형 지원이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985년부터 한국 양궁을 후원해오고 있는데, 이는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단체 후원 기간 중 최장이다. 현대차그룹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양궁

협회와 일찌감치 대비에 나섰다. 파리 올림픽 양궁 경기장인 앙발리드 경기장을 국내에 그대로 옮겨다 놓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을 활용해 슈팅 로봇, 훈련 장비, 소음 발생기, 전용 훈련장 등을 통해 선수들이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정희선 회장은 파리 올림픽 직전부터 양궁 대표팀 지원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겼다.

정 회장은 올림픽 개막식 이전에 파리에 도착해 전용 훈련장과 휴게공간, 식사, 선수 컨디션 등을 꼼꼼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평소 양궁 대표팀 선수들에게 책과 전자용품을 선물하거나 격의 없이 소통하며 선수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양궁 대표팀의 주요 경기를 직접 관중석에서 관람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양궁 여

자단제전 10연패 달성 이후 현장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관왕을 달성한 임시현은 "한국 양궁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은 정희선 회장님이다. 정희선 회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회장님은 저희한테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해주셨고 격려도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의 지원은 국가대표팀에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꿈나무들에게까지 뻗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양궁대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배한국양궁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양궁 저변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상의, 자동차산업 고용·근로환경 개선 지원

참여기업 30일까지 모집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자동차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숙소 월세와 건강검진비, 공용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산업 고용·근로환경 개선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직원 숙소 월세와 건강검진비는 예산 소진시까지, 공용시설 개선 비용 지원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광주시와 광주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과 현대차·기아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기업에는 기업이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이 검진기관 및 병원에서 근로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경우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등 근로자 복지와 관련한 공동이용시설을 수리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최근 임금·복지 격차가 커지는 등 일자리 이중구조 문제로 관내 자동차 산업 근로자의 이탈과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광주 대표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도약 장려금' 참여 근로자 및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스텔스통장에 비상금 넣어 놓으면 선물 드려요"

광주은행 12월 22일까지 진행

광주은행이 통장에 입금된 금액 조건만 충족하면 매주 커피, 주유 쿠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은행은 오는 12월 22일까지 'Wa! 매주 누워서 돈벌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 'Wa!뱅크 스텔스통장'에 이벤트 조건 금액을 넣어두면, 매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광주은행 신규 고객 또는 Wa!뱅크 스텔스통장 출시 전 6개월(2023년 10월 22일~2024년 4월 22일) 동안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벤트 기간 중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본인 명의의 Wa!뱅크 스텔스통장 평균 잔액이 300만원 이상 유지할 시 킴포즈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1000만원 이상 유지할 시 GS칼텍스 또는 GS25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권 쿠폰 1매를 매주 수요일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중 조건만 만족하면 1인당 최대 20회까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벤트 관련 예산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광주 Wa!뱅크 앱'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광주 Wa!뱅크 앱,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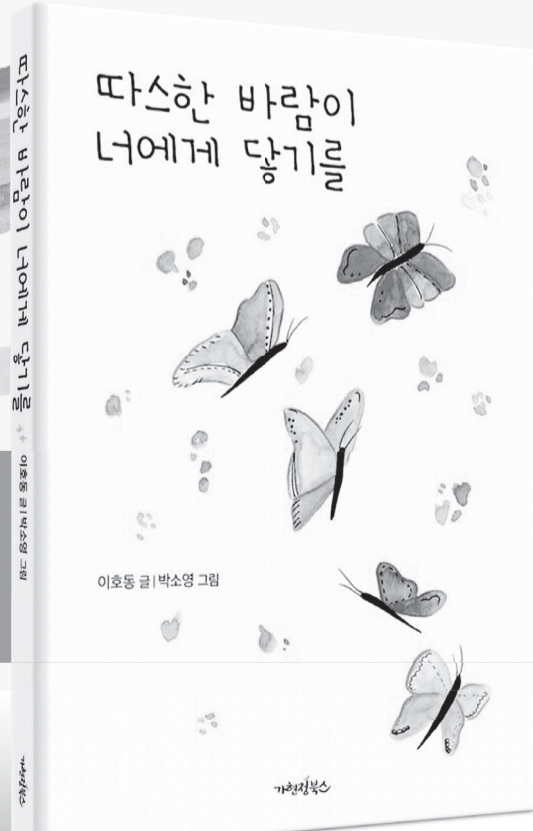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